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eea7af5e232851bd92fe72bc85c717a3ad4e0f00c682ba4a871f923e90734531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미국 연준, 고용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
 - IMF, 신흥국 경제는 테이퍼링 탠트럼(금융발작)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
 - 미국 바이든 정부,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(7.1%) 상향 조정
 -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(확정치), 70.3으로 10년래 최저치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Risk-on 강화

주가 상승[+1.5%], 달러화 약세[-0.9%], 금리 상승[+5bp]

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이 호재로 작용
유로 Stoxx 600 지수는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지속되며 0.8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는 평가 등이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8% 상승, 엔화는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
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9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8/27일	8/20일	전주말대비			8/27일	8/20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509.4	4,441.7	1.5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1%	1.26%	5bp
	유럽	472.34	468.80	0.76%		독일	-0.42%	-0.50%	8bp
	중국	3,522.2	3,427.3	2.77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641	27,013	2.32%		중국	34bp	35bp	-1bp
	한국	3,133.9	3,060.5	2.40%	위험 지표	EMBI+	356	366	-10bp
환율	달러지수	92.69	93.50	-0.87%		VIX	16.39	18.56	-11.69%
	유로화	1.1795	1.1698	0.83%		WTI유	68.74	62.32	10.30%
	엔화	109.84	109.78	-0.05%	원자재	구리	431.9	413.7	4.39%
	위안화	6.4720	6.5015	0.46%		금	1,817.6	1,781.1	2.05%
	원화	1,169.2	1,179.6	0.8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연준, 고용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

- 연준 인사들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고용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 피력. 코로나 19에 의한 실업자들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복귀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최대 고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어렵기 때문
- 파월 의장은 실업률, 노동시장 참가율 등을 최대 고용 판단에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. 일부에서는 은퇴와 자녀양육 수요 등으로 400~450만의 노동자는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우며, 이에 최대 고용의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
- 반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. 역사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공급도 증가했다면서 최대 고용의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높다고 부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, 신흥국 경제는 테이퍼링 탠트럼(금융발작)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

- 고평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를 발신했을 때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탠트럼이 발생했는데, 그와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중·저소득 국가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
- UC Berkeley의 Maurice Obstfeld는 2013년 당시와 비교해 신흥국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만,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달러화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

■ 미국 바이든 정부,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(7.1%) 상향 조정

- 이번 전망치는 이전(5.2%)보다 1.9%p 높은 수준. 향후 10년의 연평균 성장률도 2.2%로 예측하여 이전(2.0%)의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

■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(확정치), 70.3으로 10년래 최저치

- 물가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경제 개선 기대가 감소. 미시건대학의 Richard Curtin은 팬데믹 상황의 조기 종료와 일상적인 생활로의 복귀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

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를 철폐할 필요

- 타이 대표는 OECD 주도의 국제협상과 G20의 합의에 따라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 부과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. 세금 관련 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부연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2021년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 가능성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. 또한 ECB는 향후에도 역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

■ 중국 인민은행, 월말 현금 수요 증가 대비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

- 8/27일 7일물 역레포를 활용하여 3일 연속 5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. 지난 주(8/23~27일) 유동성 공급 규모는 1200억위안으로 2월 초 이후 최고 수준

■ 중국 정부, 금속가격 억제를 위해 9월에 금속비축분 15만톤을 매각할 방침

- 이번이 3번째 매각이며 구리 3만톤, 아연 5만톤, 알루미늄 7만톤을 판매할 예정. 정부는 금속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. 매각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, 금속 가공업체와 제조업체만이 참가 가능

■ 미국 서머스 전 재무장관,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오판

- 인플레이션 위험은 파월 의장의 생각보다 심각하며, 최근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강화의 신호라고 주장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지속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기업재고(전월비): 0.6%, 6월(1.2%), 예상치(-)
- 미국 7월 상품무역수지(억달러): -864, 6월(-932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잠정주택판매,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경기지수
-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, 독일 8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코로나 19 이후 노동력 부족,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Long live the labour shortages)

- 코로나 19 이후,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음이 포착. Conference Board의 Ataman Ozyildirim과 Klaas de Vries는 팬데믹 이전 10년간 0%대 수준에 머물렀던 총요소생산성(TFP) 증가율이 2021년 2%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
- 노동력 부족이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유도했으며, 원격근무 확대에 따른 이동시간 절약, 온라인판매와 디지털 결제 급증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 결과. 이의 지속을 위해 강한 수요와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기술, 기술교육 등이 필요

■ 주요 신흥국의 통화 전망, 향후 금리인상 순서에 의해 좌우될 전망 - 블룸버그

(Best Emerging-Currency Trades Lose Steam Amid New Rate Hikes)

- 브라질과 러시아 등 이미 기준금리를 상당 수준 인상한 신흥국의 통화는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달러화 대비 약세로 전환. 브라질과 러시아는 금년 기준금리를 각각 325bp, 225bp 인상
- 골드만 삭스의 Kamakshya Trivedi는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한 국가들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. 반면 한국은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 중 최초로 가계부채 억제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, 원화도 강세
- 골드만 삭스는 다음 금리인상 국가로 성장률이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진행되는 폴란드와 콜롬비아를 예상하고, 해당 통화의 강세를 전망

■ 미국 지역은행, 코로나 19 이후 역할 증대로 지속적 발전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How US community banks became 'irreplaceable' in the pandemic)

■ 미국 3/4분기 주식시장, 경기 방어주의 강세는 주가 조정의 전조 현상 - WSJ

(Stock Market Turns Cautious as 'Defensive' Shares Surg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